

노정기



[해제]

"<노정괴>는 『가사집 단』에 2단으로 필사되어 수록된 한글 가사로 여성작가의 작품이다. 작품의 창작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작품 서두에 작자의 환갑이 병인년(丙寅年)으로 제시되어 있고 중간 중간 등장하는 기차역의 영업 시작 연도가 1905년임을 생각하면 1926년(丙寅年)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환갑을 맞이한 작자가 부산 여행을 떠나기까지의 과정과 부산으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 부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 기행가사이다. 한평생 친정과 이웃마을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 작자는 환갑을 맞아 지난 인생을 회고하며 세상 구경을 떠나고자 한다. 그 목적지는 부산이며 개화기 당시의 생생한 풍경을 글로 풀어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작자는 후손들을 훈인 시키고 여생을 마무리하며 작품을 마친다. <노정괴>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의 설렘이 잘 묘사되어 있으며 특히 경부선의 각 기차역을 지나면서 역의 명칭과 주변의 명승지 및 경관에 대한 설명이 작품의 주를 이룬다. 밀양의 유천역, 삼랑진 역, 양산의 원동역, 물금역, 부산의 구포역, 초량역 등과 유천빈지소(楡川一池沼), 영남루(嶺南樓), 삼포(鎡浦), 낙동강(洛東江), 통도사(通度寺) 등이 작품에 등장한다. 또한 개화기 항구 도시 부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사집 단』에는 <노정괴>외에 <우민가라>와 <심청가>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원문]

가사집단

노정괴

병인삼월 초심일은 나이늑순 초도이라
손부신흥 이날하니 만실광경 무량이라
현조가손 나를위히 원근친척 광속하야
이삼일 환낙하니 히구지회 고병이라
각산당공 흘노안조 왕스를 싱각하니
일심일스 헛부도다 심규에 잠겨안조
늑십년 보닌광음 덧업시 넘것도다
시당모춘 조흔절에 풍호무호 하는청춘
이세상에 몇~친고 하물며 닉이쳐지
창빈니 벽발되고 근강니 쇠진토록
먼길출립 친정이요 구경이 인동이라
압길이 얼마근디 노경까지 슈령하랴
동기멧멧 모혀안조 통도구경 겨닝알저
기차동차 다버리고 죽장혀 도보로써
산도보고 물도보고 촌촌전진 구경가조

탄탄언약 미질적에 턱손도 겁이업고
 디히라도 건너갈뎡 굿게굿게 단정훈후
 즈질불너 이말하니 악년이 놀나면서
 못가도록 막년말이 엄엄근녁 턱손넘어
 퍽너리길 어이가리 부모삿줄 거사람은
 불초즈에 횡도이라 이번길은 한스하고
 기녀거절 흥는지라 일평싱 첫츄립을
 저이들 막난거시 괴심하고 이달으며
 몇몇칠 거녕훈일 슈포을공 되단말가
 한번동한 이마음이 싸라안기 어렵도다
 다시치쳐 칭망하니 너이들 당년한말
 우리도 요랑하느 죠모업산 우리근녁
 날노침쇠 당히오고 효성갓치 훗터지면
 너이들 종천한과 풍슈지회 어이허리
 이말한말 감동쥬어 노정을 변경하야
 불만한곳 골느니니 경성평양 죠흐나마
 즈부붓쳐 용이찬코 디구경쥬 명승이나
 별노볼젓 업는지라 한고딕셔 고로보기
 부산싸이 적당하니 이곳으로 단성하고
 슈형즈를 골느니니 큰집장질 조청한다
 저이썸을 살팔진디 고로지감 풍슈회
 일싱에 원한이라 승모들 디신하여
 저이한도 위로하고 발익씨 인도키로
 압장을 셔는지라 니이스정 감누들고
 즈이마음 가특하나 농가승진 이겨녕이
 침소봉디 되앗스며 만스구비 오날날의
 동남풍이 한이로다 하로밧비 발정키로
 식가급기 직촉하나 슈형즈의 다스로서
 오월초순 작정한다 이날오기 고딕하나
 유슈광음 이런말노 지리하긔 싹이업셔
 손솨파 기두림은 어린아히 셤바라긔
 이녀셔 더할손가 심지마즌 성공사돈
 우리일형 불참하긔 이들하긔 싸이업셔
 안쪽에 셔신날녀 동형을 청히더니
 원일견지 한든초의 불일니로 오섯도다
 반가이 손길잡아 한흔을 마친후에
 명산디천 구경길을 녑수하에 자랑하니
 모라난곳 아는듯고 안본곳도 본것갓다

큰구경 압히두고 두달동안 보닐적이
 근방명승 고로츠즈 풍호무호 논니면서
 오월오일 손부근친 섬섬히기 치송하고
 이달팔일 박모씨에 슈형자 경성길을
 무스이 귀환하니 우리거람 속히질일
 더한층 반가와라 잠농도 다마치고
 못감어기 미급하니 만스에 장이업서
 발정히기 식급하다 심늑일 쵸반후의
 초초횡장돈 허녀동횡을 직촉하니
 파파노옹 녀섯시라 만홀치 아니하다
 칠순노경 속모게서 저른작지 이지삼고
 압셔압셔 나오신다 노소일담 망횡으로
 못가시기 간곡하니 추산갓치 호령하니
 엄엄한 그압히서 뉘가감히 정지하라
 파파단신 적은형님 반씩슈발 곱기씻고
 술술히기 차린우의 곱방년죽 가룻쥐고
 속보로 것난거동 철니길도 능당할덧
 불근당고 고은집신 두가지가 촌셔렵다
 나이그동 나모르나 남이나를 불디에는
 이러하기 우수워라 빅슈풍진 남우식으로
 몇씩니 구경감이 용감도 하려니와
 모든집일 씻쳐눅코 못이져워 어이갈고
 청슈기결 성곡사돈 선명한 횡구범절
 도회바람 마신덧고 출립상에 익숙한덧
 다원씩 직촉하니 무삼치장 그리눅노
 남나종 나오난딴 널너이 못지안타
 가만가만 것노모양 이웃집 가논덧다
 슈식갓한 어양씩은 한목금이 스셔들고
 동횡차자 혼단할져 이집저집 도라단녀
 다나간후 혼조남아 광인갓치 뒤을쫓츠
 강변에서 맛난는딴 갓분숨이 혈씩혈씩
 우리일횡 다모혔다 빅종조 차조보니
 회식양복 흰바지에 익고조를 놀너스고
 가는단장 날리면서 표년니 나다르니
 당당한 시속소년 우리일횡 이지로다
 조질부녀 뒤를쌀코 압셔거니 뒤셔거니
 압길을 알푼것너 동곡동 다다르니
 전에만이 보앗건만 이부텀 구경갓다

조도초 기두리니 차는오지 아니하고
 구각만 느러진다 한곳디 모혀안조
 히담하고 웃난둥이 보지못한 부산항구
 눈압히 열진열진 굶겹고 급한마음
 온갓스럼 절노난다 조동차 만원이며
 우리일헝 어이가며 차이만일 탈낫스며
 이거람 어이할고 요마쵸마 헝년둥에
 어양퓌 달녀오며 한손의 술병들고
 한손에 안쵸들고 은근다정 권하도다
 활협슈단 으심하고 술난곳을 무러보니
 이동니 아는집에 일헝을 빙조하고
 어더온 디침이라 한목음에 밧썩취히
 혼몽둥 놀나썩니 우렁갓흔 소리니고
 조동차가 모라운다 앓가사럼 슬퍼보니
 식면부지 노소남조 가득하긔 타고있다
 조딜빅 차를잡고 무엇무엇 말하드니
 간다온다 말도업시 살썩갓치 다라난다
 이제야 못가느줄 손툼녀물 살이면서
 엇지하나 물어보니 조곰만 기두리며
 다시온다 이말덧고 제육이 안심되야
 반나잘이 갓가우니 시장한덧 기운엄셔
 먹던밥 다문먹고 성급헝긔 나온것시
 지금이야 한이로다 담은담빅 다뭏하셔
 부인초 달녀온다 일헝이 올라타니
 한자리도 남지안닉 닳는차를 멈쵸고셔
 전송나온 녀룻이계 간단니 하측할제
 다각다각 녀녀되로 누누이 부탁하니
 철리말니 가느덧고 몇몇달 그린덧다
 천동갓한 저소리에 썩로썩가 요동헝며
 질풍갓치 모라가니 익은산천 머러지고
 심소풍경 다아온다 상리한 이마음이
 우화등션 되넛난덧 금곡고기 넘어가셔
 쇠골동구 들다보니 음밀비령 아츠지나
 동창시장 다다르니 닳던차가 정지한다
 어셔가긔 직촉헝니 덩유소에 안즌손니
 운전슈를 질척헝되 먼침땀던 손을두고
 나중온손 먼침감을을 경우업다 힐거한다
 두어말 슐과하고 다시몰아 나아갈제

풍우갓치 닳는형데 소낙비 완년하다
 스무동구 들다보고 몬담압 산밋지나
 종도면소 바라보며 원정즈 당도하야
 잠관동안 정거하고 쏘다시 다라난다
 관곡동구 지점하니 사가난 안보이나
 리셔방퓌 싱각난다 썩썩소리 조조나니
 닉인거인 길피하고 노방에 셋던스람
 손들고 타랴하나 마원이라 손짓하느
 낙담하는 그모양은 탄스람 부러운듯
 덕산동 목판지느 공퓌지 너머갈제
 난딛업난 썩소리에 속고무가 터젯도다
 승길을 다니루고 비지쌈을 흘니면서
 운전슈 익스난것 보기익도 절박하다
 양장산노 구비틀어 절정우에 다다르니
 늣흔산에 오르난듯 신기하고 탄복된다
 네름구비 조심조심 쇠실압 건너셔니
 청도녁이 녀기로다 질비한 식가옥은
 식읍니 완년하드 덩유소 차에나려
 딛남녀관 드러가니 쥬인나셔 맛넛거동
 초면에 구안갓다 요로올 마친후에
 정기장 나아가니 전에뭇본 모든것이
 네만봐도 도회갓다 좌탑우에 몸을붓쳐
 차오기를 기딛할제 동셔남북 오난사람
 차탈손니 아닌가 반달갓흔 철사문니
 왈각하고 널니더니 사람마다 표을스고
 무거운짐 부퓌헝탁 하물간의 막기도다
 목촉문니 널니며셔 가회들고 셋난녁분
 승길을 인도하느 차포금스 상심한다
 별판마당 모아셔니 그딛지 만치안니
 신호씨 느러지며 기적소리 요란터니
 웅장한 저기초가 흑씩년기 토하면서
 천동지동 모라와셔 션는압히 지극된다
 나리는손 기둘너셔 차등에 더러셔니
 남녀노소 썩찾는딛 늣고안고 지상업다
 비인조리 초조닉셔 일헝한곳 모혀안조
 그물현판 헝탁언고 고요이 그동보니
 청도명 산악썩을 요란셔리 외셔판다
 호각소리 멀리나며 기적울고 박회도니

집과산이 움작인다 산악갓흔 장한형세
 질풍갓치 다라나며 부지하쳐 향후도다
 다행갓흔 소리밋히 공굴을 건너난덧
 침침칠야 일물치논 굴속을 지나난덧
 척히가설 그지쥬와 차산통도 그술법은
 신술인가 일력인가 너른벌판 지나다가
 심산순곡 도라든다 윗천벽 정거하니
 당터는 어린고 덩고당은 한산하니
 경산남북 도게이요 이로부터 미랑짜라
 빈지소 얼핏지나 모락을 도라더러
 올흔편녀 시동치 그밋히 청운이라
 퍽돋어머 왕니흔길 녑녀히 지점하고
 외인편 장님속에 화계마을 분명하야
 기천지회 간절하니 성식통치 못한한을
 천변귀운 붓쳐주고 살리마을 바라보이
 동고싱각 간절하다 기차가 스정잇서
 잠관만 머물지라 우리거람 기별하녀
 한가지 구경갈썰 무가니라 알과하고
 장선마을 지나가니 왕년에 찾던문호
 녑녀히 기억된다 평니촌 지점하고
 용두공굴 건너면서 녑남누 바라보니
 웅장한 근물이며 명낭한 죠흔경계
 못오름이 한니로다 미랑녑 당두하니
 번창하고 화려하다 읍니는 초간한디
 교동은 어딘고 삼기산천 바라보니
 운무가 가리웁다 이마를 지닐진디
 친척고구 허다하닉 곳곳면 그리워라
 밀양면산 은어밥을 고향쳐서 외셔판다
 이곳을 출발하여 원근산천 바라보니
 곳곳이 싱소한디 풍경이 아람답다
 무월니 기나긴굴 갑갑히 지닉가서
 삼당녑 녑기로다 화려번창 큰규모는
 비랑보다 웃썸이라 마산진쥬 가는철도
 녑고셔 지점이라 슬푸다 창원김실
 몇번이나 지났던고 셔편을 바라보니
 망망하 낙동강이 물결소리 온녑하듯
 차지명산 과일나무 망망무적 울밀하다
 이곳을 잠관지닉 왼편의 안티마을

십니밧기 멀넨난디 식증쥬 뉘신산천
 명당혈쳐 분명하고 울울송익 큰포치는
 물견답기 보이도드 원동녁 다다르니
 한산한이 촌력에 정괴장이 가관일다
 밀량양산 경기지가 이곳이 분명하다
 물금녁 당도하니 통도사 가는녀난
 이정거장 나리더라 우리일형 구경키로
 회로연약 멈쳐노코 귀포녁 다다르니
 달핑갓흔 가옥들이 교밀하긔 되넛난디
 슈풍을 겁님인가 집집마다 그물덥고
 차지산물 갈씩로써 폭폭하긔 이넛도다
 김희를 가라하면 이곳서 빅를탄다
 얼마를 다라보니 망망딴히 보이난딴
 디소선박 왕늑한딴 부산진 다다르니
 외인편 디히씨고 울은편 세가지라
 기화전등 녀관이며 녀개가 아닐넛가
 각식공장 질비하고 바다빅울 경계선은
 공스둥지 하고잇다 초량녁 잠관거나
 부산녁 당도하니 이번거람 목적지요
 원일견지 하던딴라 만치아난 횡탁이나
 이즘업시 슈십하고 마흔성긔 나라는딴
 사뭇쳐서 물을나니 나넛한 각식초는
 타고가라 간청하고 검은동정 흰글자신
 녀관하인 니리션고 방정하고 음식사니
 저을싸라 가조함이 옷솓히 미달일딴
 귀찬하녀 다바리고 자침자침 나아가니
 호호망망 되도상에 각식차가 왕늑하고
 닉인거긔 복잡하여 자친하며 쌀고칠딴
 전쳐셔로 가로넛고 쥬분골목 한참가셔
 동층딴 발바올나 학생녀관 다다르니
 쥬인나와 마자준다 범성만한 셋방안에
 일형이 분좌하니 썩솓하고 덩한품과
 칠칠하고 쥬용함이 제집이나 온딴하다
 셋쳐온길 도라보니 슈씩니 월정이라
 순식간에 나라오딴 곤기자심 누어서니
 흔들흔들 요동뿔이 아득차이 안니린딴
 난디업던 비쌍울이 함석우에 부다칠제
 가문다음 반가우나 구경뭇할 이마음이

죠이기가 활양업다 석반을 맛고나니
 곤한다리 강죽허녀 력낙선 구경가즈
 문밭게 나셔보니 휘황찰난 저전등이
 오식빚치 반작이고 오락가락 하는사람
 너른길이 비좁도다 정괴장압 지나가셔
 산바시 노항갈제 외인편 각식전반
 죠션물산 쏜니로다 바다밭게 가는사람
 기렴선물 만나숄덧 바가 청을노아
 너른마당 되얏나되 큰빅하나 되야스니
 이그이련 낙이라 산씀갓흔 큰구조에
 집과갓치 되얏구나 빅병통치 부산온슈
 넷부텀 드러더니 정결하고 희한함은
 온슈닝슈 나노곳줄 귀신도 탄복일니
 녀그셔 지점든니 통도스 지척이라
 즈동초 타고가니 경치도 슈려하고
 굉장한 괴구범절 귀로만 드럿더니
 관동한 녀의질아 세세낫낫 별구경을
 스람마다 못하거든 훈후한 언스붓쳐
 소고나와 압장하고 이철녁 묵은고물
 녀녀히 유람한후 석벽이 삭인일흠
 양산영 출쥬지라 식롭고 슬푸더라
 그럭저럭 몇날인고 지으로 도라왓셔
 노곤도 업셔지고 승천입지 든넛던가
 빅형쥬 후어로서 만득으로 너이형데
 세월이 아득더니 난형난데 장성허녀
 문호을 창딛하고 봉제스 적빈각이
 일문의 송성엇고 스읍군즈 두럿허니
 일비일히 흐논마음 녀칠종반 심증터니
 죠장님니 적덕녀음 네후스가 망미허랴
 천상이 옥동인가 천스실 종반되니
 이져야 무한이고 녀성한 녀이즈녀
 일남일녀 아랍더니 친외손 녹종반니
 선동선녀 기절허니 현조현딜 현소이며
 기화요초 종손녀들 년~뒤스 녀훈지닉
 현암한 준수옥남 기~이 선평도골
 너히자황 기절허고 숙모에 오락풍상
 이제야 면핢난지 노반에 지위허고
 티평무스 순슈타가 망칠지년 되녀스니

갈길이 머잔은덧 구천타일 차가가며
고할고지 만흘지라 녹철동괴 싱한조녀
십녀종반 관두흐고 타별소쳐 성곡사돈
피초인세 헛부도다 초싱이 미진정을
후세로 기약할덧 허다한 무궁소회
풀어닐 지식업고 간단이 곳치논것
보시난이 요절할덧 쫓
우민가라
천하성경 강남구기 산도조코 물도조코 무
산선이 노던고되 아황연이 주근고되 만
고절석 고은얼골 우민이인 식로났다
유공자의 싹임이요 초피왕의 부인이

[현대역]

가사집단

노정기

병인삼월(丙寅三月) 초십일(初十日)은 나의 육순(六旬)1 초도(初度)2이라
 손부(孫婦)3 신행(新行) 이날 하니 만실광경 무량(無量)이라
 현자(顯者)가손(家孫)4 나를 위해 원근친척(遠近親戚) 광속하여
 이삼일 환락(歡樂)5하니 해구지회 고병이라
 객산당공 홀로 앉아 왕사(往事)6를 생각하니
 일생일사(一生一死)7 헛되도다 심규(深閨)8에 잠겨 앉아
 육십년(六十年) 보낸 광음(光陰) 덧없이 넘겼도다
 시당모춘(時當暮春) 좋은 절에 풍호무호(風乎舞乎) 하는 청춘
 이 세상에 몇몇 인고 하물며 나의 처지
 창빈이 백발(白髮)되고 건강이 쇠진(衰盡)하도록
 먼 길 출입 친정(親庭)이요 구경이 인동(隣洞)9이라
 앞길이 얼마건데 노경(老境)10까지 수렴하라
 동기 몇몇 모여앉아 통도구경 겨냥할 저
 기차동차(汽車動車) 다 버리고 죽장혜(竹杖鞋)11 도보(徒步)로서
 산도 보고 물도 보고 촌촌전진(村村前進)12 구경 가자
 탄탄언약 맺을 적에 태산(泰山)도 겁이 없고
 대해(大海)라도 건너갈 듯 굳게 굳게 단정한 후
 자질(子姪)13불러 이 말하니 악년이 놀라면서
 못가도록 막은 말이 엄엄근력(奄奄筋力)14 태산넘어
 백여리길 어이가리 부모 뜻을 거역한 사람은
 불초자(不肖子)의 행동이라 이번 길은 한사하고
 기녀거절 하는 지라 일평생 첫 출입을
 저 애들 막는 것이 괴씸하고 애달으며
 몇몇일 겨냥한 일 수포로 되단 말인가
 한번 동한 이 마음이 가라앉기 어렵도다
 다시 찾아 책망하니 너희들 당연한 말
 우리도 요량15하나 조모 없는 우리 근력
 날로 침쇠 당하오고 효성같이 흠어지면
 너희들 증천한(終天恨)16과 풍수지회(風樹之懷)17 어이하리

이말 한말 감동주어 노정(路程)을 변경하여
 불만한 곳 골라내니 경성(京城)18 평양(平壤) 줄으나마
 자부(子婦)19붙여 용이치 않고 대구(大邱) 경주(慶州) 명승(名勝)이나
 별로 볼 것 없는지라 한 곳에서 한 곳 보기
 부산 땅에 적당하니 이곳으로 단정(斷定)하고
 수행자를 골라내니 큰집 장질(長姪)20 자청(自請)한다
 저 애 뜻을 살필 진데 고로지감 풍수회가
 일생에 원한이라 숙모를 대신 하여
 저 애한도 위로하고 발익기 인도하기로
 앞장을 서는 지라 나의 사정 감누들고
 저 애 마음 기특하나 농가(農家)승지(勝地) 이 겨냥이
 침소봉대(針小棒大)21 되었으며 만사구비(萬事具備) 오늘날에
 동남풍(東南風)이 한이로다 하루바삐 발정(發程)22하기로
 시기(時期) 급히 재촉하나 수행자(修行者)의 다사(多思)로서
 오월초순(五月初旬) 작정한다 이날 오기 고대하나
 유수광음(流水光陰)23 이런 말로 지루하기 짝이 없어
 손꼽아 기다림은 어린 아이 설 바라기
 이보다 더할 손가 심지맞은 성공사돈
 우리일행 불참하기 애들하기24 짝이 없어
 안족(雁足)25에 서신(書信)날려 동행(同行)을 청했더니
 원일견지(願一見之)26 하던 차에 불일내(不日內)27로 오셨도다
 반갑게 손길 잡아 한흔을 마친 후에
 명산대천(名山大川) 구경길을 역수하에 자랑하니
 모르는 곳 아는 듯하고 안 본 곳도 본 것 같다
 큰 구경 앞에 두고 두 달 동안 보낼 적이
 근방명승(近方名勝) 고로 찾아 풍호무호(風乎舞乎) 노니면서
 오월오일(五月五日) 손부(孫婦)근친(覲親)28 섭섭하게 치송(治送)29하고
 이 달 팔일(八日) 박모(薄暮)30때에 수행자 경성길을
 무사히 귀환하니 우리 걸음 속해질 일
 더한층 반가워라 잠농(蠶農)31도 다 마치고
 모숨어기 미급하니 만사에 장이 없어
 발정하기 시급하다 십육일(十六日) 조반(朝飯)후에
 초초행장(草草行裝)32도 하녀 동행을 재촉하니
 파파노옹(皤皤老翁)33 여섯이라 많지 아니하다
 칠순노경(七旬老境) 숙모게서 저른작지 애지삼고
 앞서서 나오신다 노소일담 망행으로
 못가시기 간곡하니 주산(主山)같이 호령하니
 엄엄(嚴嚴)한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정지하랴

파파(皤皤)단신 적은 형님 반백수발(半白鬚髮) 곱게 빗고
 수수하게 차린 위에 곱방연죽 가룻쥐고
 속보(速步)로 걷는 거동 천리길도 능당(能當)34할 듯
 붉은 당의(唐衣)35 고운 짚신 두 가지가 촌스럽다
 나의 거동 나 모르나 남이 나를 볼 때에는
 이러한 게 우스워라 백수풍진(白首風塵)36 남우시로
 몇 백리 구경감이 용감도 하려니와
 모든 집안일 떨쳐놓고 못 잊어 어이 같꼬
 청수개결(淸秀介潔)37 성곡사돈 선명한 행구(行具)38범절(凡節)
 도회(都會)바람 마신 듯하고 출입상(出入相)에 익숙한 듯
 다원택 재촉하니 무슨 치장 그리 늦노
 남나중 나오는데 열녀 못지않다
 가만가만 걷는 모양 이웃집 가는 듯하다
 수새같은 어양택은 한 모금을 사서 들고
 동행찾아 혼단할 제 이집 저집 돌아다녀
 다 나간 후 혼자 남아 광인(狂人)같이 뒤를 쫓아
 강변에서 만났는데 가쁜 숨이 헐떡헐떡
 우리 일행 다 모였다 백종자(從子)39 찾아보니
 회색양복 흰 바지에 맥고자(麥藁子)40를 눌러쓰고
 가는 단장 날리면서 표연(飄然)히41 다다르니
 당당한 시속소년(時俗少年) 우리일행 애지로다
 자질(子姪)부녀(婦女) 뒤를 따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길을 알פות 건너 동곡동 다다르니
 전에 많이 보았건만 여기부터 구경갔다
 자동차 기다리니 차는 오지 아니하고
 구각(晷刻)42만 늘어진다 한곳에 모여 앉아
 해담(諧談)43하고 웃는 중에 보지 못한 부산 항구
 눈앞에 어른어른 궁금하고 급한 마음
 온갖 사념(思念) 절로 난다 자동차 만원(滿員)이면
 우리일행 어이 가며 차에 만일 탈났으면
 이 걸음 어이할꼬 요마조마 하는 중에
 어양택 달려오며 한손에 술병들고
 한손에 안주들고 은근 다정 권하도다
 활협(闊俠)44수단(手段) 의심하고 술 난 곳을 물어보니
 이 동리(洞里) 아는 집에 일행을 빙자(憑藉)하고
 얻어온 대접이라 한 모금에 바짝 취해
 혼몽중(昏憒中) 놀라 깨니 우뢰 같은 소리 내고
 자동차를 몰아온다 아까 사람 살펴보니

생면부지(生面不知)⁴⁵ 노소남자(老少男子) 가득하게 타고 있다
 자질배 차를 잡고 무엇무엇 말하더니
 간다온다 말도 없이 살 때같이 달아난다
 이제야 못가는 줄 손톱 여물을 썰면서⁴⁶
 어찌하나 물어보니 조금만 기다리며
 다시 온다 이 말 듣고 더욱이 안심되어
 반나절 가까우니 시장한 듯 기운 없어
 먹던 밥 다 못 먹고 성급하게 나온 것이
 지금이야 한이로다 담은 담배 다 못해서
 부인차 달려온다 일행이 올라타니
 한자리도 남지 않네 달는 차를 멈추고서
 전송(餞送) 나온 여럿에게 간다하니 하직(下直)할 제
 다각다각 염려대로 누누이 부탁하니
 천리만리(千里萬里) 가는 듯하고 몇몇 달 그린 듯하다
 천둥 같은 저 소리에 부로배가 요동하며
 질풍같이 몰아가니 낮익은 산천 멀어지고
 생소(生疏)한 풍경 다가온다 상래한 이 마음이
 우화등선(羽化登仙)⁴⁷ 되었는데 금곡고개 넘어가서
 쇠골⁴⁸동구(洞口) 들여다보니 음밀비령 아차 지나
 동창시장 다다르니 뺏던 차가 정지한다
 어서가게 재촉하니 정류소에 앉은 손님이
 운전수를 질책하되 먼저 뺏던 손님을 두고
 나중에 온 손님 먼저 감을 경우없다 힐거(詰拒)⁴⁹한다
 두어 말 사과하고 다시 몰아 나아갈 제
 풍우(風雨)같이 달는 형체 소낙비 완연(宛然)하다
 스무 동구(洞口) 들다보고 문답 앞 산 밑 지나
 종도면소 바라보며 원정자 당도하여
 잠깐 동안 정거(停車)하고 또다시 달아난다
 관공동구 지점하니 사가는 안보이나
 이서방덕 생각난다 뽕뽕소리 자주나니
 익인 거인(去人) 길 피하고 노방(路傍)에 섰던 사람
 손들고 타라하나 만원(滿員)이라 손짓하니
 낙담(落膽)하는 그 모양은 탄 사람 부러운 듯
 덕산동 목판지나 공태재 넘어갈 제
 난데없는 빵소리에 속고무가 터졌도다
 승객(乘客)을 다 내리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운전수 애쓰는 것 보기에다 절박하다
 양장산으로 구비틀어 절정위에 다다르니

높은 산에 오르는 듯 신기하고 탄복된다
 네름구비 조심조심 쇠실암 건너서니
 청도역이 여기로다 즐비한 새 가옥은
 새 읍내 완연하다 정류소(停留所) 차에 내려
 대남여관(旅館) 들어가니 주인나서 맞는 거동
 초면에 구안(久安)같다 요로(要路)를 마친 후에
 정거장 나아가니 전에 못 본 모든 것이
 너만 봐도 도회(都會)같다 좌탑위에 몸을 붙여
 차오기를 기대할 제 동서남북(東西南北) 오는 사람
 차 탈 손님이 아닌가 반달같은 철사문이
 왈칵하고 열리더니 사람마다 표를 사고
 무거운 짐 부푼 행탁(行囊)50 화물칸에 맡기도다
 목차문이 열리면서 가위들고 서있는 역무원
 승객을 인도(引導)하네 차표 검사 상심(詳審)51한다
 별판 마당 모아서니 그다지 많지 않네
 신호 때 느려지며 기적소리 요란하더니
 웅장한 저 기차가 흑백 연기 토하면서
 천동지동(天動地動) 몰아와서 서는 앞에 지극된다
 내리는 손님 기다려서 차 가운데에 들어서니
 남녀노소 꼭 찾는데 눕고 안고 지상없다
 빈자리 찾아내서 일행한 곳 모여 앉아
 그물 현판 행탁(行囊) 엮고 고요히 그 동네 보니
 청도 명산(名産)52 약떡을 요란하게 외쳐 판다
 호각(號角)소리 멀리나며 기적(汽笛)울고 박회53도니
 집과 산이 움직인다 산악(山岳)같은 장한 형세(形勢)
 질풍(疾風)같이 달아나며 부지하처(不知何處) 향하도다
 뇌성(雷聲)같은 소리 밑에 동굴을 건너는 듯
 침침칠야(沈沈漆夜)54 이를 제는 굴속을 지나는 듯
 척해가설 그 재주와 차산(此山) 통도(通道)55 그 술법은
 신술(神術)인가 인력(人力)인가 너른 별판 지나다가
 심산산곡(山谷) 돌아든다 유천역(楡川驛)56 정거하니
 당터는 어디인고 정거장은 한산하나
 경상남북 도계리(道界里)요 이로부터 밀양(密陽)따라
 빈지소(池沼)57 얼핏 지나 모래를 돌아들어
 오른편 여시동재 그 밑에 청운이라
 백돈어멈 왕래한 길 역력히 지점(指點)하고
 왼편 장님속에 화계마을 분명하여
 기천지회 간절하나 성식통치 못한 한을

천변기운 붙여주고 살래마을 바라보니
 동기(同氣)생각 간절하다 기차가 사정 있어
 잠깐만 머물지라 우리 걸음 기별하니
 한가지 구경갈 길 무가내(無可奈)58라 알까하고
 장선(長善)마을59 지나가니 왕년에 찾던 문호
 역력히 기억된다 평리촌 지점하고
 용두동굴 건너면서 영남루(嶺南樓)60 바라보니
 웅장한 건물이며 명랑(明朗)61한 줄은 경개(景概)62
 못 오름이 한이로다 밀양역(密陽驛) 당도하니
 번창하고 화려하다 읍내는 초간(稍間)63한데
 교동은 어디인고 삼개64 산천(山川) 바라보니
 운무(雲霧)가 가리었다 이마를 지낼 진데
 친척고구(親戚故舊)65 허다하네 곳곳면 그리워라
 밀양 명산(名産) 은어(銀魚)밤을 고향쳐서 외쳐 판다
 이곳을 출발하여 원근산천(遠近山川) 바라보니
 곳곳이 생소(生疎)한데 풍경이 아름답다
 무월리 지나간 골 감감히 지나가서
 삼당역66 여기로다 화려번창 큰 규모는
 밀양(密陽)보다 으뜸이라 마산(馬山)진주(晉州) 가는 철도
 여기서 지점이라 슬프다 창원(昌原)김실
 몇 번이나 지났던고 서편을 바라보니
 망망하(茫茫河) 낙동강(洛東江)이 물결소리에 온열하다
 차지명산(此地名産) 과일나무 망망(茫茫) 무재 울밀(鬱密)하다67
 이곳을 잠깐 지나 원편의 안태(安台)마을68
 십리밖에 멀었는데 시증조(媿曾祖) 모신 산천(山川)
 명당혈처(明堂穴處) 분명하고 울울송백(鬱鬱松柏) 큰 포치(布置)는
 물건답게 보이도다 원동역(院洞驛)69 다다르니
 한산한 이 마을에 정거장이 가관이다
 밀양(密陽)양산(梁山) 경계지(境界地)가 이곳이 분명하다
 물금역(勿禁驛)70 당도하니 통도사(通度寺)71 가는 데는
 이 정거장 내리더라 우리일행 구경하기로
 회로(回路)언약(言約) 멈춰놓고 구포역(龜浦驛)72 다다르니
 달팽이같은 가옥(家屋)들이 교밀(巧密)하기 되었는데
 수풍을 겁내는 것인가 집집마다 그물 덮고
 차지산물(此地産物) 갈대로서 푹푹하게 이었도다
 김해(金海)를 가려하면 이곳에서 배를 탄다
 열마를 달려보니 망망대해(茫茫大海) 보이는 듯
 대소선박(大小船舶) 왕래(往來)한다 부산진(釜山鎭) 다다르니

왼편 대해(大海)끼고 오른편 시가지(市街地)라
 개화(開化)전등(電燈) 여관(旅館)이며 여기가 아닐런가
 각색공장(各色工場) 즐비하고 바다 매울 경계선은
 공사(工事)중지(中止) 하고 있다 초량역(草梁驛)73 잠깐 지나
 부산역(釜山驛) 당도하니 이번 걸음 목적지요
 원일견지(願一見之) 하던 곳이라 많지 않은 행탁(行囊)이나
 잇음 없이 수십하고 많은 승객 내리는 데
 사뭇쳐서 물으려니 나열한 각색(各色) 차는
 타고가라 간청(懇請)하고 검은 동정 흰 글자 쓴
 여관하인 내려서 방 정(淨)하고 음식 싸니
 저를 따라 가자함이 옷 끝에 매달릴 듯
 귀찮아하며 다 버리고 자침침(駸駸)74 나아가니
 호호망망(浩浩茫茫)75 대도(大道)상에 각색(各色) 차가 왕래(往來)하고
 내인거객(來人去客) 복잡하여 자칫하면 깔고 칠 듯
 전차 세로 가로 넘고 좁은 골목 한참 가서
 돌층대(層臺) 밟아 올라 학성여관(旅館) 다다르니
 주인 나와 맞아준다 범성만한 셋방(貰房)안에
 일행이 분좌(分座)76하니 깨끗하고 정한 품과
 칠푼하고 조용함이 제 집이나 온듯하다
 비쳐온 길 돌아보니 수백리(數百里) 월정이라
 순식간에 날아온 듯 곤기(困氣)77 자심(滋甚) 누었으니
 흔들들 요동(搖動)뒀이 아직 차에서 안 내린 듯
 난데없던 빗방울이 함석위에 부딪칠 제
 가운 다음 반가우나 구경 못할 이 마음이
 조이기가 한량(限量)없다78 석반(夕飯)을 맞고 나니
 곤한 다리 강작(強作)79하여 연락선(連絡船)80 구경가자
 문 밖에 나서보니 휘황찬란(輝煌燦爛) 저 전등(電燈)이
 오색빛이 반짝이고 오락가락 하는 사람
 너른 길이 비좁도다 정거장 앞 지나가서
 산바시81 노항갈 제 왼편 각색(各色) 전방(塵房)82
 조선(朝鮮) 물산(物産)뿐이로다 바다밖에 가는 사람
 기념선물(紀念贈物) 많이 살 듯 바가 청을 놓아
 너른 마당 되었으되 큰 배 하나 되었으니
 이것이 연락(連絡)이라 산등성이 같은 큰 구조에
 집과 같이 되었구나 백병통치(百病通治)83 부산온수(釜山溫水)
 옛날부터 들었더니 정결하고 희한함은
 온수냉수(溫水冷水) 나는 곳을 귀신도 탄복(歎服)할세
 여기에서 지점(指點)드니 통도사(通度寺) 지척(咫尺)이라

자동차 타고 가니 경치도 수려하고
 굉장한 기구범절(器具凡節)84 귀로만 들었더니
 관중(款重)한 나의 질아(姪兒)85 세세날날 별구경을
 사람마다 못하거든 혼후(渾厚)한 언사(彦士) 붙여
 소고(小姑)86 나와 앞장하고 이천년 묵은 고을
 넉넉히 유람(遊覽)한 후 석벽(石壁)에 새긴 이름
 양산영 출주지(出駐地)라 새롭고 슬프더라
 그럭저럭 몇 날이고 집으로 돌아와서
 노곤(路困)87도 없어지고 승천입지(昇天入地)88 들었든가
 백형주 후예(後裔)로서 만득(晩得)89으로 너의 형제
 세월이 아득하더니 난형난제(難兄難弟)90 장성(長成)하여
 문호(門戶)를 창대(昌大)하고 봉제사 접빈객(奉祭祀 接賓客)91이
 일문(一門)에 송성(頌聲)얻고 사읍 군자(君子) 뚜렷하니
 일비일희(一悲一喜) 하는 마음 여칠종반 심증(心症)92하더니
 조상님네 적덕여음(積德餘蔭)93 네 후사가 망매(茫昧)94하라
 천상이 옥동(玉童)인가 천사실 종반되니
 잊어야 무한이고 영성(英聖)한95 나의 자녀
 일남일녀(一男一女) 알았더니 친외손(親外孫) 육종반이
 선동선녀(仙童仙女) 기절하니 현자(賢者)현질(賢姪)96 현소(玄素)97이며
 기화요초(琪花瑤草)98 종손녀(從孫女)들 연연대사(年年大事) 여혼(女婚)99이네
 현암한 준수(俊秀)옥남(玉男) 개개(箇箇)이 선풍도골(仙風道骨)100
 너희 자황 기절하고 숙모에 오락풍상(誤落風霜)
 이제야 면했는지 노반에 지위하고
 태평무사(太平無事) 순수하다가 망칠지년(望七之年) 되었으니
 갈 길이 멀지않은 듯 구천타일(九泉他日)101 찾아가며
 고할 곳이 많은 지라 육칠동기(六七同氣) 생(生)한 자녀
 십년종반(十年終盤) 관주하고 타별소처(他別所處) 성곡사돈
 피차인세(彼此人世) 헛되도다 차생(此生) 이미 진정을
 후세(後世)로 기약(期約)할 듯 허다(許多)한 무궁(無窮)소회(所懷)
 풀어낼 지식(知識) 없고 간단히 그치는 것
 보시는 이 요절(腰絕)102할 듯 끝

[각주]

- 1) 육순(六旬) : 예순 살.
- 2) 초도(初度) : ①환갑날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②생일을 달리 이르는 말.
- 3) 손부(孫婦) : 손자며느리.
- 4) 가손(家孫) : 자기의 손자를 남에게 이르는 말.
- 5) 환락(歡樂) : 아주 즐거워함.
- 6) 왕사(往事) : 지나간 일.
- 7) 일생일사(一生一死) :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일.
- 8) 심규(深閨) : 여자가 거처하는, 깊이 들어앉은 집이나 방.
- 9) 인동(隣洞) : 이웃 마을.
- 10) 노경(老境) : 늙어서 나이가 많은 때. 또는 그때 즈음.
- 11) 죽장혜(竹杖鞋) : 죽장망혜(竹杖芒鞋).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으로 가장 간단한 보행이나 여행의 차림을 뜻함.
- 12) 촌촌전진(村村前進) : 村(촌)은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며, ‘촌촌전진’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헤아려보면서 앞으로 나아감을 말함.
- 13) 자질(子姪) : 자손.
- 14) 엉엉근력(奄奄筋力) : 매우 약한 상태의 힘.
- 15) 요랑 : 요사(妖邪), 요망하고 간사함.
- 16) 종천한(終天恨) : 부모의 초상이 나서 생기는 한.
- 17) 풍수지회(風樹之懷) :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아니 계시기에 효성을 다하지 못하는 슬픔.
- 18) 경성(京城) : 서울의 전 이름. 1910년에 일본이 침략하면서 한성(漢城)을 고친 것.
- 19) 자부(子婦) : 며느리.
- 20) 장질(長姪) : 맏조카.
- 21) 침소봉대(針小棒大) :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 22) 발정(發程) : 길을 떠남.
- 23) 유수광음(流水光陰) :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른 세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4) 애들하기 : ‘애들하다’는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리다’의 향속어.
- 25) 안족(雁足) : 기러기 발.
- 26) 원일견지(願一見之) : 한 번 만나 보기를 바람.
- 27) 불일내(不日內) : 며칠 걸리지 아니하는 동안.
- 28) 근친(覲親) :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뵈.
- 29) 치송(治送) :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나보냄.
- 30) 박모(薄暮) : 해가 진 뒤 어스레한 동안.
- 31) 잠농(蠶農) : 누에 농사.
- 32) 초초행장(草草行裝) : 죽장망혜초초행장(竹杖芒鞋草草行裝)을 뜻하는 말로 단촐하게 행장을 차림을 뜻함.
- 33) 파파노옹(皤皤老翁) : 머리털이 하얗게 센 늙은이.

- 34) 능당(能當) : 능히 감당함.
- 35) 당의(唐衣) : 여자들이 저고리 위에 덧입는 한복의 하나. 앞길과 뒷길이 저고리보다 길고 도련은 둥근 곡선으로 되어 있으며 옆은 진동선 아랫부분이 트여 있음.
- 36) 백수풍진(白首風塵) : 늘그막에 세상의 어지러운 일이나 온갖 곤란을 겪게 됨을 이르는 말.
- 37) 청수개결(淸秀介潔) : 얼굴이 빼어나고 성품이 곧음.
- 38) 행구(行具) :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 39) 종자(從子) : 조카.
- 40) 맥고자(麥藁子) : 맥고모자(麥藁帽子). 맥고로 만든 모자. 개화기에 젊은 남자들이 주로 썼음. ‘밀짚모자’로 순화.
- 41) 표연(飄然)히 : 훌쩍 나타나거나 떠나는 모양이 거침없게.
- 42) 구각(晷刻) : 짧은 시간.
- 43) 해당(諧談) : 농지거리.
- 44) 활협(闊俠) : 일을 처리하는 주변이 좋고 활동력이 강함.
- 45) 생면부지(生面不知) :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 46) 손톱 여물을 쓸면서 : 속담. ‘손톱 여물을 쓸다’. 앞으로 손톱을 씹는다는 뜻으로, 곤란한 일을 당하여 혼자서만 애를 태우는 모양을 이르는 말.
- 47) 우화등선(羽化登仙) : 사람의 몸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됨.
- 48) 쇠골 : 인천부 부내면 금곡리 지역으로서 ‘쇠골’ 또는 ‘금곡’이라고 하였음. 현재 인천 동구 금창동.
- 49) 힐거(詰拒) : 서로 트집을 잡아 비난하며 맞서서 거름.
- 50) 행탁(行囊) : 여행용 전대나 자루. 노자나 행장(行裝)을 넣음.
- 51) 상심(詳審) : 꼼꼼하게 자세히 살핌.
- 52) 명산(名産) : 명산물.
- 53) 박회 : 바퀴의 옛말.
- 54) 침침칠야(沈沈漆夜) : 아주 가까운 거리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두운 밤.
- 55) 통도(通道) : 통로.
- 56) 유천역(楡川驛)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에 위치한 현재의 상동역(上東驛). 1906년 5월 15일 역사 준공, 유천역(楡川驛)으로 영업 개시. 2000년 1월 1일 상동역(上東驛)으로 역명 개칭.
- 57) 빈지소(-池沼) : 유천빈지소(楡川一池沼).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에 있는 소(沼). 빈지라는 이름은, 이 지대가 삼각주인데다 물가에 개구리밥과 빈초(草)가 많아 빈주(洲)라고 하다가 빈지가 되었다고 함. 조선 숙종 이전부터 빈주연(洲淵)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음.
- 58) 무가내(無可奈) : 막무가내.
- 59) 장선(長善)마을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선리에 속하는 자연 마을.
- 60) 영남루(嶺南樓)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內一洞) 밀양강가에 있는 조선시대의 누각건축. 조선시대의 밀양군 객사(客舍)였던 밀양관(密陽館)의 부속건물로서 밀양 강가의 절벽 위에 위치함. 창건 연대는 고려 말이라고 하나, 현재의 건물은 조선 현종 때 불탄 것을 2년 후인 1844년에 재건하였다고 함.
- 61) 명랑(明朗) :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함.
- 62) 경개(景概) : 경치(景致).
- 63) 초간(稍間) : 한참 걸어가야 할 정도로 조금 먼 거리.

- 64) 삼개 : 삼포(鈇浦). 밀양시 사포리. 신라시대에 향부곡(鄉部曲)이 설치되면서 신포향(薪浦鄉)으로 불렀는데, 신(薪)은
- 65) 친척고구(親戚故舊) : 친(親)은 동성지친(同姓之親)이고 척(戚)은 이성지친(異姓之親)이요, 고구(故舊)는 오랜 친구(親舊)를 말함.
- 66) 삼당역 : 삼랑진역(三浪津驛).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기차역. 경부선에 있는 기차역으로 미전역과 원동역 사이에 있음. 1905년 1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음.
- 67) 울밀(鬱密)하다 : 나무 따위가 무성하게 우거져 뻘뻘하다.
- 68) 안태(安台)마을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安台里).
- 69) 원동역(院洞驛)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에 있는 기차역. 삼랑진역과 물금역 사이에 있음. 1905년 1월 1일 무배치 간이역(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1906년 보통역으로 승격됨.
- 70) 물금역(勿禁驛)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기차역. 원동역과 화명역 사이에 있음. 1905년 1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 71) 통도사(通度寺)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下北面) 영축산(靈鷲山)에 있는 사찰.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신라의 자장(慈藏)이 당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돌아와 신라의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왕명에 따라 통도사를 창건하고 승려의 규범을 관장, 법식(法式)을 가르치는 등 불법을 널리 전했다고 함.
- 72) 구포역(龜浦驛)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기차역. 화명역과 사상역 사이에 있다. 1905년 1월 1일 운전취급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
- 73) 초량역(草梁驛) : 경상남도 부산부 초량정에 위치했던 경부선의 역. 1905년 1월 1일에 개업함.
- 74) 침침(駸駸) : 속력이 매우 빠름.
- 75) 호호망망(浩浩茫茫) : 바다나 호수 따위가 끝없이 넓고 멀어서 아득함.
- 76) 분좌(分座) : 자리를 나누어 앉음.
- 77) 곤기(困氣) : 고단한 기색이나 느낌.
- 78) 한량(限量)없다 : 그지없다.
- 79) 강작(強作) : 억지로 기운을 냄.
- 80) 연락선(連絡船) :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협이나 해안, 큰 호수 따위의 수로를 횡단하면서 양쪽 육상 교통을 이어 주기 위하여 다니는 배.
- 81) 산바시 : 선창, 부두를 가리키는 일본어. さん-ばし [棧橋].
- 82) 전방(塵房) :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가게.
- 83) 백병통치(百病通治) : 만병통치(萬病通治).
- 84) 기구범절(器具凡節) : 모든 격식.
- 85) 질아(姪兒) : 조카.
- 86) 소고(小姑) : 시누이.
- 87) 노곤(路困) : 먼 길에 지치고 시달려서 생긴 피로나 병.
- 88) 승천입지(昇天入地) : 하늘로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자취를 감추고 없어짐을 이르는 말.
- 89) 만득(晩得) : 늙어서 자식을 낳음.
- 90) 난형난제(難兄難弟) :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

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91) 봉제사 접빈객(奉祭祀 接賓客) :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대접함.

92) 심증(心症) : 마음에 마땅하지 않아 화를 내는 일.

93) 적덕여음(積德餘蔭) : 덕을 쌓아 남긴 음덕.

94) 망매(茫昧) : 경험 따위가 적어 세상 물정에 아주 어두움.

95) 영성(英聖)한 : 학덕(學德)이 뛰어나고 사리에 밝은.

96) 현질(賢姪) : 어진 조카라는 뜻으로, '조카'를 높여 이르는 말.

97) 현소(玄素) : '이별(離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8) 기화요초(琪花瑤草) : 옥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99) 여혼(女婚) : 딸을 시집보내는 것.

100) 선풍도골(仙風道骨) :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란 뜻으로, 남달리 뛰어나고 고아(高雅)한 풍채를 이르는 말.

101) 구천타일(九泉他日) : 저승에서 다시 만날 날.

102) 요절(腰絶) : 허리가 부러진다는 뜻으로, 몹시 우스워 허리가 아플 정도로 웃는 것을 이르는 말.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